

현대 부모-자녀관계와 조선시대 부모-자녀관계의 관계 *

Neo-Confucianism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he Chosun Dynasty and the Present

백 헤 리 **
Baeck, Hae Rhee

ABSTRACT

Children's textbooks and women's manuals were used to investigate parent-child relationships under the Neo-Confucianism of the Chosun Dynasty compared with the present. Current practices of filial piety (Hyo) have changed but are still based on Neo-Confucianism. In present-day child rearing, parents aim to love their children (Ja-Ae) and to teach them Neo-Confucian values.

I. 서 론

우리나라에서 서구의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이론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의 일이다. 당시의 몇몇 여성용 잡지를 살펴보면 아동 발달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서구의 이론이 소개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혜경, 1998). 또한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산업화, 서구화의 영향을 받아 서구의 부모-자녀관계, 혹은 육아법에 관한 많은 저서가 소개되었고, 또 서구적인 육아 방법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Dr. Spock의 육아전서(원제: The Common Sense Book of Baby and Child

Care)나 H. G. Ginott의 부모와 자녀사이(원제: Between Parent and Child: New Solutions to Old Problems)와 같은 육아, 혹은 양육 지침서가 각각 1969년과 1972년 번역되어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출판된 많은 종류의 생활백과사전은 양육, 육아에 대한 서구의 방법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¹⁾.

이와 같이 1900년대 초기부터 10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개된 서구의 아동양육법, 혹은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이론은 현대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 혹은 양육법에 얼마나 큰 영향을

* 본논문은 1998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Multicultural/Child-Youth Conferences에서 발표된 논문을 기초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음.

** 이화여대 시간강사

1) 1960년대 출판된 몇몇의 생활백과사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지사에서 1962년 출판한 "새로운 육아백과"나 1962년 동아출판사에서 출판한 "국민생활백과", 여원사(1967)의 "새로운 육아백과" 등의 내용으로 아동의 발달특징, 혼합영양, 예방주사 맞추기, 놀이지도(장난감소개), 어린이의 질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었을까?

몇몇의 학자들이 전통 사회에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인식, 아동 양육법에 관한 연구²⁾를 이미 수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전통 사회와 현대의 양육 방법, 부모-자녀 관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과 현대 사회의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를 위하여 먼저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기 직전 시기인 조선 시대의 부모-자녀 관계를 정의하고, 이를 현대 사회에서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과 비교하고자 한다.

II. 연구 문제 및 방법

위의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이상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은 무엇인가?
- 2) 현대 사회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은 무엇인가?
- 3)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부모-자녀관계와 현대 사회 부모-자녀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위의 문제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먼저 현대 사회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미 충분히 수행된 바 있으므로³⁾ 본 연구에서는 이 선행 연구 결과를 이용하기로 한다. 또한 전통 사회인 조선 시대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은 조선 시대의 사상적인 이념인 성리학으로만 한정하여 연구

하기로 한다. 물론 조선 시대 500여 년의 기간에는 사회, 역사, 그리고 이념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조선의 사상적 이념인 성리학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⁴⁾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성리학적 사고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를 파악한다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와 같은 성리학적 사고에서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은 조선 초기 이후 성리학을 보급하기 위해 조선 초기에 중국에서 도입, 언해된, 그리고 조선 학자들에 의해 저술된 아동용 교과서, 여성용 교훈서를 통해 파악하고 한다. 그 이유는 조선 초기에 도입, 언해되거나 저술된 책들은 조선의 지배계층이 조선 초기 이후 일반 백성에게 일관되게 강조한, 그리하여 조

2) 류점숙(1989). 조선시대 인간발달 단계 및 그 교육내용. 아동학회지. 10. 1-18.

_____(1991). 조선후기 동몽교재의 내용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신양재(1994). 조선시대 풍속지에 나타난 아동양육 고찰: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경도잡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291-228.

우영희(1989). 조선시대 교훈서를 통해본 자녀양육: 동몽선습, 격몽요결, 사소절, 고암가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외에도 다수가 있다.

3) 현대 사회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 중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는 1994년 4월 현재 국회에 소장된 학위 논문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는 340여 편에 이른다. 이 중에서 1990년 이후 이루어진 연구는 230여 편이며, 1998년 수행된 연구도 40여 편에 이른다.

4) 실학의 경우 성리학에 기반을 두고 실용성을 추구한 학문의 한 갈래였으며(주철성, 1996), 동학 역시 유, 불, 선의 사상을 취합한 성격을 띤 것으로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의 기본사상은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유병덕, 1993).

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일반인의 삶의 기준이 된 성리학적 근본 이념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실제적인 조선시대 부모-자녀 관계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책들은 조선 초기 이후 계속 사용된 대표적인 아동용 교과서인 동몽선습, 격몽요결과 소학, 그리고 여성용 교훈서인 여사서와 내훈 등이

다. 이중 소학은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중국의 주희가 저술하였으며 여사서는 여성을 위한 네 권의 책인 여계, 여범, 여논어, 내훈 등을 청나라의 옹상이 묶은 것이다. 반면 박세무의 동몽선습, 이율곡의 격몽요결, 소혜왕후 한씨의 내훈 등은 국내 학자가 저술한 것이다.

III. 본론

1. 조선 시대 부모-자녀관계

조선 시대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조선 사회의 생태적 특성에 대해서 정리한 후 아동용 교과서와 여성용 교훈서 등을 통해 본 조선 시대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조선 사회의 특성

당시 조선 사회의 특성은 성리학을 중심 이념으로 하였으며,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고, 종법제 중심으로 하는 대가족제에 의해 가족주의가 유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종법제(宗法制)란 중국 주나라 때 만들어진 가족 제도로써 적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제도로써, 장자는 조상의 제사와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큰 어른으로, 그리고 집안을 다스리게 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신분제였다. 또한 조선은 농업 경제 중심의 사회였다. 당시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은 모든 일을 육체 노동으로 해결해야 하였으므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대가족제를 선호하고 어린이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키고자 하는 조혼의 풍습과 다산을 장려하였다. 이

와 같이 정해진 땅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복잡하면서도 잘 조직화된 가족 제도를 유지하여야 하였다. 즉, 철저한 위계질서와 윤리의 실천이 필요하였는데 그 근본 윤리인 오륜은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중요한 요소였다.

2)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

(1) 사회의 기본 단위의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부모와 자녀

조선시대의 사회적인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이었다. 개인의 존재는 개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의 구성원으로서만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개인은 “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집이란 개념은 건물이나 장소 등을 의미하는 물리적인 개념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의 공동체이며, 사회의 기초 단위이며, ‘나’를 영속적으로 존속시키는 가계 계승의 의미를 지닌다.⁵⁾ 이에 대해 소학에서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공경하지 않는 것

5) 유혜령(1993). 전통가정교육의 사회적 배경. 『한국인의 전통가정 교육사상』 정신문화연구원 논총 93-18, 이계학, 유혜령, 손직수, 이홍우(공저) (서울: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pp.19-21.

이 없지만 내 몸가짐을 조심하는 것을 크게 여긴다. 내 몸이라는 것은 부모의 몸에서 생긴 것으로 나무에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몸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부모를 상해하는 것이 되고 부모를 상해하면 이것은 근본을 상해하는 것이 되니 근본을 상해하면 가지는 따라서 망할 것이다.’하시나……”⁶⁾

라고 하여 나와 부모, 그리고 집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나 아동도 모두 개개의 존재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혼인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혼인의 의미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보지 않고 “장차 두 성이 좋게 합하여 위로는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사를 잇는 것”⁷⁾이며 “혼례라는 것은 자손만대의 시초이다”⁸⁾이라 하여 사회적 기본 단위인 가정의 영속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겼다.

이러한 가족 관계에서 특히 아동은 미성숙한 존재였을 뿐이며, 단지 미래의 구성원이 될 가능체이라는 점에서만 가치를 인정받았다.

(2) 서열적인 부모-자녀관계

부모도 아동처럼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은 아동과 부모 혹은 성인을 대등하게 인식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는 아동을 성인보다 낮은 존재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성리학에서는 인간이 선한 본연지성인 인의예지를 지녔다고는 하지만 기질지성에 따라 인간의 기품이 달라진다. 즉, 선한 인간의 본성은 혼탁한 기질에 가려져 있으며 이 기질을 제거한 정도에 따라 인품의 청탁, 수박의 특성이 결정된다. 격몽요결에 의하면,

“대개 범인과 성인은 그 天性은 똑같은 것이니 비록 기품이 청탁과 수박의 차이는 없을 수 없겠지만 진실로 진리를 알고 실천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누습을 버리고 天性을 처음 모습으로 되찾는다면 조금도 보태지 않더라도 모든 선함이 다 풍족할 것이다.”⁹⁾

라고 하고 있다. 기품에 있어서 청탁과 수박의 차이는 바로 성인과 범인을 나누는 기준으로, 이는 교육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즉, 교육을 통해 인간이 인육을 잘 제거하여 기품이 청하고 수하면 성인으로써 귀한 자가 되며, 반대로 인육을 제거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을 편안해”¹⁰⁾ 하게 되면 탁하고 박한 기품을 지니게 되므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된다.

이와 같은 신분의 기준에 의하면 아동은 아직 교육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첫 단계에 있으므로 인육을 억제하지 못하였고 기질지성이 제거되지 못한 혼탁한 상태이므로 먼저 태어나 교육을 받은 성인보다 신분이 낮은 존재였다.¹¹⁾

따라서 연령이 어린 아동이 성인, 부모보다 낮

6) 孔子曰 君子 無不敬也 敬身爲大 身也者 親之枝也 敢不敬與 不能敬其身 是 傷其親 傷其親 是 傷其本 傷其本 枝從而亡 (小學: 敬身 第三)

7) 婚禮者 將合二性之好 上以事宗廟 而下以繼後世也 (禮記: 昏義內訓: 婚禮章)

8) 夫婚禮 萬世之始也 (小學: 明倫 第二; 內訓: 婚禮章)

9) 蓋衆人與聖人 其本性則一也 雖氣質 不能無清濁粹駁之異 而苟能眞知實踐 去其舊染 而復其性初 則不增毫末 而萬善具足矣 (擊蒙要訣: 立志 第一)

10) 安此暴棄 (小學: 小學題辭)

11) 이와 같이 아동을 성인, 부모보다 낮은 존재로 보는 인식에서 시작하여 조선 후기에는 아동을 천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의 사소절에서 아동을 미천한 아동이라는 뜻인 “비유(卑幼)”라고 칭하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백혜리, 1997).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성인,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젊은이가 어른을 섬기며 친한 이가 귀한 이를 섬기되 다 이것(禮節)에 따를 것”¹²⁾이라 하고 “어른이 주시어든 젊은이나 친한 이가 감히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¹³⁾라고 하여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친한 이나 여성이 사회적 신분이 높은 양반이나 남성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존재인 성인, 혹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3) 친(親)의 관계: 자애(慈愛)와 효(孝)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부모-자녀관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친(親)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기본 윤리인 오륜에서도 부자유친(父子有親)이라 하여 그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친(親)이란 자(慈) 혹은 자애(慈愛)로 표현되는 부모가 보이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효(孝)라고 표현되는 자식의 부모에 대해 공경을 의미한다. 동몽선습에 의하면 친애함이란

“자식은 그 친애함이 타고난 성품이니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사랑하여 가르치며,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효도하여 봉양한다.”¹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즉, 자 혹은 자애란 무한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동시에 엄격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부모는 며느리를 포함하여 “아들과 며느리가 공경하지 않거나 효

도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미워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된다.”¹⁵⁾고 하여 자애, 즉, 자녀를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애한다는 것은 “사리를 어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반드시 가르치고 훈계하는 올바른 도리를 다할 것”¹⁶⁾이라고 하여 가르침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내훈과 여사서에서도 확인된다. 즉,

“사람에게 사랑만 있고 가르침이 없으면 자라서 더디어 어질지 못하게 되니, 자녀들은 그 뜻대로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제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급히 단속해서 그 나쁜 점을 감싸주지 말도록 하며 한번이라도 잘못이 저질러지면 급히 그런 버릇을 쳐 없애야 한다.”¹⁷⁾

“그러므로 실로 고식하게 자애 한다는 것을 일삼거나 자애에 빠지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면 이는 스스로 그 아랫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다.”¹⁸⁾

라고 하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엄격한 가르침 없는 사랑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 반하여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효라고 할 수 있다. 효란 “온갖 행실의 근원”¹⁹⁾으로 이는 “남자와 여자가 비록 다르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낳아서 기른 수고로움은 같고 아들과 며느리가 비록 다르다고 하더라도 효도하고 공경하는 도리는 같다.”²⁰⁾ 라고 하여 남녀의 차이 없이 지켜야 할 절대적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부모에 대해 효도한다는 것은 크게 봉양과 존경, 그리고 절대적

12) 少事長 賤事貴 共師時(小學:明倫 第二)

13) 長者賜 少者賤者不 敢辭(小學:明倫 第二)

14) 父子 天性之親 生而育之 愛而教之 奉而承之 孝而養之(童蒙先習:父子有親)

15) 凡子婦 未敬未孝 不可遽有憎疾(內訓:母儀章)

16) 慈者非違理之謂也 必也盡教訓之道乎(女四書:內訓 慈幼章)

17) 有愛無教 長遂不仁 母徇其意稍縱 輒束 母護其惡 一起輒撲(內訓:母儀章)

18) 以爲慈 溺愛 以爲德 是自蔽其下也(女四書:內訓 慈幼章)

19) 夫孝者 百行之源(女四書:女範 孝行篇)

20) 男女雖異 勛勞則均 子媳雖殊 孝敬則一(女四書:女範 孝行篇)

인 복종을 의미한다.²¹⁾

먼저 부모에 대한 봉양이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편안하도록 봉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학에 의하면

“곡례에 말하기를 ‘무릇 자식된 자의 예는 (부모에게) 겨울에는 따스하게 하며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며 저녁에는 자리를 펴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뜰) 살 펴보며 나갈 때에는 반드시 아뢰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보이며 다니는 곳은 반드시 떳떳함이 있으며 익히는 것은 반드시 업(일정한 학업)이 있게 하며 항상 하는 말에 늙었다고 자칭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²²⁾

“예기에 말하기를 ‘부모가 생존해 계시거든 감히 자기 몸을 자신의 마음대로 못하며 감히 사사로움 재물을 갖지 못하나니 백성에게 상하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²³⁾

“효도하는 자녀가 아버이를 섬길 때는 계시면 그 공경을 다하고 봉양하면 그 즐거움을 다하고 병들면 그 근심을 다하고 죽으면 그 슬픔을 다하고 제사를 지내면 그 엄숙함을 다 할 것이다. 이 다섯 가지를 다 잘 갖춘 다음에야 그 아버이를 잘 섬긴다고 할 것이다.”²⁴⁾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자식에 대해 염려하지 않도록 함을 포함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편안히 모시는 봉양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다.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아버이를 섬기는 근본이다. 봉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음식을 마련하여 봉양하는 것을 효도로 생각한다면 이는 모자라는 행실이다.”²⁵⁾

“잘 섬기는 것은 공경스러운 행실을 다 하는데 있어서 공경을 다하면 엄숙해지고, 사랑을 다하면 유순하게 도리 것이니 마음을 오로지 하고 정성을 다해 감히 게으름이 있지 말아야 함이 곧 효도의 큰 예절이다. 의복과 음식은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맛있는 음식의 받들음을 극진히 하되 털끝만큼이라도 다하지 않음이 있으면 오히려 봉양하지 않음과 같으며 수고로운 힘을 극진히 하되 잠깐이라도 공경하지 않음이 있으면 오히려 섬기지 않음과 같다.”²⁶⁾

위의 글에 의하면 존경심 없는 봉양은 의미가 없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효의 또 다른 의미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다. 역사서에서는 “그 아버이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이 곧 아버이를 섬기는 큰 도리이다”²⁷⁾라고 하고 있으며, 격몽요결, 역사서 등에서도

21) 이와 같이 효, 혹은 부모-자녀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즉, 이계학(1996)은 “효”의 의미를 사랑과 존경의 의미로 해석한다. 여기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존경은 두려움, 즉, 엄(嚴)이라는 의미로 풀이하였다. 또한 유안진(1990)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하여 장유유서라고 하는 인간관계의 윤리를 제시하면서 연장자의 자애와 연소자의 공경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옥분 외 7인(1997)은 부모-자녀관계 자체를 효의 관계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22) 曲禮曰 凡爲人子之禮 冬溫而夏清 昏定而晨省 出必告 反必面 所有常 所習必有業 恒言 不稱老 (小學: 明倫)

23) 禮記曰 父母在不敢有其身 不敢私其財 元民有上下也 (小學: 明倫)

24) 孝子之事親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內訓: 孝親)

25) 孝敬者 事親之本也 養非難也 敬爲難 以飲食供奉 爲孝斯末矣 (女四書: 內訓)

26) 善事者在致敬 致敬則嚴 在致愛 致愛則順 專心竭誠 母敢有怠 此孝之大節也 衣服飲食其次矣 故極甘旨之奉 而毫髮有不盡焉 猶未嘗養也 盡勞動之力 而頃刻有不恭焉 猶未嘗事也 (女四書: 內訓)

27) 不違其親 斯事親之大者也 (女四書: 內訓)

“아들과 며느리가 효도하고 공경하는 일은 그 부모와 시부모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태만하지 말아야 한다.”²⁸⁾

“무릇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모든 일이나 모든 행실에 감히 제 맘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부모의 명령을 받은 뒤에 행할 것이다.”²⁹⁾

“부모의 뜻하는 일이 만일 의리에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마땅히 부모가 말씀하시기 전에 그 뜻을 받들어 잘 순종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³⁰⁾

고 하고, 또한 부모가 비록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과실을 세 번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부르짖어 울면서 (부모 하시는 대로) 따를 것”³¹⁾ 이라고 하여 부모의 뜻에 꼭 순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무조건적인 순종은 부모의 체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하였다. 즉, 부모가 어떠한 이유로 체벌한다 할지라도 자녀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였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한 매에 대하여 자식은 원망해서는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부모의 매가 자식의 잘못에 대한 가르침의 것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노하여 때려서 피가 흘러도 감히 원망하지 않는다”³²⁾ 고하여 부모의 체벌에 대해서도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의 특성인 자애-효 중에서 더욱 강조된 것은 자식의 효이다. 즉, 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모가 사랑하시면 기뻐하여 잊지 못하고, 미워하시면 두려워할 뿐 원망하지 않는다”³³⁾고 하고, 또한 “비록 아버지가 인자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효도를 아니하지 못한다”³⁴⁾고 하여 절대적인 도리로서 효를 다 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격몽요결에서는

“일반 사람들의 집의 부자간에 흔히 사랑이 공경보다 지나치나니 꼭 낡은 습관을 철저히 씻어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극진히 모셔야 한다.”³⁵⁾

라고 하여 부모의 자애보다는 자녀의 효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4)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달라진 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의 특성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 먼저 아동의 나이가 10세가 되기 이전에는 “가르치는 묘책은 실로 전혀 어머니에게 달려있는 것이니”³⁶⁾라고 하여 자녀의 양육의 책임은 성별에 관계없이 어머니에게 달려 있다고 보았다. 어머니의 자녀를 가르침은 태아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태교를 통하여 자녀의 성품이 어머니를 닮는다고 보아 태

28) 子婦孝者敬者 父母舅姑之命 勿逆勿怠 (內訓: 孝親)

29) 凡父母者一事一行 毋敢自專 必稟命而後行 (擊蒙要訣: 事親)

30) 父母之志 若非害於義理則當先意承順 毫忽不可違 若其害理者則和氣怡色 柔聲以諫 反覆開陳 必期於聽從 (擊蒙要訣: 事親)

31) 則號泣而隨之 (小學: 明倫)

32) 怒而撻之流血 不敢疾怨 (童蒙先習: 總論)

父母怒不悅而撻之流血 不敢疾怨 (小學: 明倫 第二)

33) 父母愛之 喜而不忘 惡之 懼而無怨 (童蒙先習: 總論)

34) 父雖不慈 子不可以不孝 (童蒙先習: 父子有親)

35) 人家父子間 多是愛逾於敬 必須痛洗舊習 極其尊敬 (擊蒙要訣: 事親)

36) 年已長成 教之有序 訓誨之權 實專於母 (女四書: 女論語)

37) 母儀 先於父訓 慈教 嚴於義方 (女四書: 女範)

아기에 이루어지는 어머니의 가르침(태교)에 대해 “어머니의 용의는 아버지의 훈계보다 먼저이고 어머니의 인자한 가르침은 아버지의 올바른 교훈보다 엄격하였다”³⁷⁾라고 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내훈에서도 “자녀가 어질지 못한 것은 실은 그 어머니에게 배인 것이니”³⁸⁾라고 하여 아동의 성품에 있어서 어머니의 최초의 가르침, 즉 태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동의 나이가 10세가 되면 아동의 성별에 따라 그 교육이 달라진다. 예기에 의하면 이 시기는 유(幼)라고 하여 배움(學)이 시작되는 시기³⁹⁾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배움(學)의 시작이란 성별에 따라 생활의 장소와 교육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아는

“열 살이 되거든 바깥 스승에게 나아가 취학하게 하여 바깥에 거처하고 잠자게 하며 글씨 쓰고 계산하는 것을 배우게 하며 옷을 명주로 저고리와 바지를 아니하며 禮節은 처음에 가르친 법대로 따르게 하며 아침과 저녁에 어린이가 禮儀(幼儀)를 배우되 간이(簡易)하고 신실(信實)한 일을 청하여 익히게 할 것이다.”⁴⁰⁾

라고 하여 10세 이후에는 성인 남자들의 생활 공간인 사랑으로 나아가 남자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성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으며 아동의 나이가 7, 8세가 되면 남아는 이미 여아와 구분되고 글을 배우기 시작하지만, 생활의 공간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은 10세가 되면서부터이다. 반면, 여아는

“계집아이는 열 살이 되거든 (항상 규문 안에 거처

하여 밖에)나가지 않으며 여선생이 순한 말씨와 순한 용모와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며 삼과 모시로 길쌈을 하며 누에를 쳐서 실을 뽑으며 비단을 짜고 끈을 땅아서 여자의 일을 배움으로써 의복을 제공하며 제사에 참관하여 술과 초(식초)와 대나무 제기과 나무제기와 침채와 욕장을 올려서 어른을 도와 제례를 올리는 것을 돕게 할 것이다.”⁴¹⁾

라고 하여 이때부터 성인 여성처럼 집안에서만 지내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규문 밖의 출입을 못하며, 성인 여성의 태도와 품성, 그리고 집안 일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10세 이전에 유지되던 어머니와 남녀 자녀간의 긴밀한 관계는 10살 이후가 되면서 변화한다. 즉, 남아의 경우는 아버지와, 그리고 여아의 경우는 어머니와 긴밀해지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역시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 먼저 아동을 양육, 교육함에 있어서 아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까지, 5세 즉, 아동의 연령이 2, 3세가 될 때까지는 조건없는,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학에서는

“자식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거든 가르치되 오른 손으로써 하게 하며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 사내 아이는 (큰 소리로)속히 대답하고, 계집아이는 (부드러운 소리로) 느슨하게 대답하게 하며...”⁴²⁾

라고 하여 이 시기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동이 젓 대신에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시기나 말을 배우는 시기는 대체로 2, 3세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부터 가르치기 시작

38) 子之不肖 實係於母(內訓: 母儀)

39) 人生十年曰幼. 學(禮記: 曲禮)

40) 十年 出就外傅 居宿於外 學書計 衣不帛襦袴 禮帥初 朝夕學幼儀 請肄簡諒(小學: 立教 第一)

41) 女子十年不出 姆教婉婉聽從 執麻枲 治絲繭織紵組紃 學女事 以共衣服 觀於祭祀納酒漿蓬豆菹醢 禮相助奠(小學: 立教 第一)

42) 子能食食 教以右手 能言男唯女俞 男鞶革 女鞶絲(小學: 明倫)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연령보다 어린 아동의 경우, 부모는 생활에서 어떤 제한도 하지 않았다. 예기에 의하면 “어린이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먹고자 하는 것은 때없이 먹는다”⁴³⁾라고 하고, “아버이를 공양한 달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음식은 어린이가 그 나머지를 먹는다”⁴⁴⁾라고 하여 이 시기 아동을 무조건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조건적인, 완벽한 보호와 사랑의 양육의 태도는 10살 이후가 되면 매우 엄격한 양육 태도로 변화한다. 또한 아동에게 성인과 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하였다. 먼저 소학에 인용된 여형공의 고사를 살펴보면,

“여형공의 나이가 겨우 열 살이 되었을 때 날씨가 몹시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더라도 종일토록 부모를 모시고 섰으면서도 앉으라고 분부하지 않으면 감히 앉지 않았다”⁴⁵⁾

라고 하고 있다. 이상적인 어린이의 행동으로 이미 10살이 되면 어른과 같이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나이가 10살이 되면 “어린이가 어른을 섬기는 예의(禮儀)”인 유의(幼儀)를 배워야 하였다.⁴⁶⁾ 여기서 어린이의 성인을 섬기는 예란

“남녀가 아직 관례나 계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닭이 처음 울면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빗질하고 머리털을 싸매고 먼지를 털고 머리털을 묶고 주머니를 차고서 날이 밝을 무렵에 무슨 음식을 드시

겠냐고 묻는다. 만일 이미 드셨으면 물러나고, 아직 들지 않았으면 어른을 도와 음식을 준비한다.”⁴⁷⁾

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10세 아동에게 엄격하게 성인들이 어른을 섬기는 예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부터 아동이 성인처럼 예를 행할 것을 기대하고 그를 위해 가르침이 엄격하였음을 의미한다.

2. 현대 사회 부모-자녀관계

현대 사회의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 태도와 아동에 대한 효 교육 내용과 효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1)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1980년대, 90년대의 연구는 다양한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관된 경향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 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척도 중⁴⁸⁾ Schaefer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에 의해 측정된 초등학교 연령 이하의 어린이의 부모의 양육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연령까지의 아동을 자녀를 둔 한국 사회 부모들이 지닌 양육 태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애정적-통제적(김성연, 1981; 이원영, 1983; 김정숙, 1986; 윤세용, 1987; 김진남, 1987; 허은주, 1988; 김영심, 1990; 상형자, 1992) 태도

43) 孺子蚤寢晏起 唯所欲 食無時(禮記: 內則)

44) 旨甘柔滑孺子餽(禮記: 內則)

45) 甫十歲 祈寒暑雨 侍立終日 不命之坐也。(內訓: 母儀)

46) 幼儀幼事長之禮儀也(成渾集註)

47) 男女未冠笄者, 鷄初鳴 咸盥漱 櫛縱 拂髦總角 衿纓 皆佩容臭 昧爽而朝 問何食飲矣 若已食則退 若未食 則左長者視具(禮記: 內則)

48) 부모의 양육 행동 연구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척도에는 Schaefer나 Becker의 2개의 차원, Braumrind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가치관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5)

라고 할 수 있다.⁴⁹⁾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 태도는 여러 가지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아동의 연령에 따라 특징이 달라진다. 즉,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는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연구대상의 연령이 3, 4, 5 세 유아인 몇몇의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영순, 1988; 김윤숙, 1989; 황선명, 1994; 표옥자, 1996; 조혜선, 1999), 다른 연령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는 자율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정, 1996; 우인철, 1996).

다음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양육 태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윤세용, 1987; 김인순, 1991; 박은정, 1996), 수용적인 양육 태도를 나타내며 외향적, 긍정적, 정의적인 것으로 (김인순, 1992; 고영미, 1996) 나타난 반면,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 정도가 낮을 수록, 거부, 통제에 경향이 높은 것으로 (이원영, 1983), 그리고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옥자, 1996).

세 번째로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도 부모의 양육 태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들의 경우는 딸보다 더 자율적이고 독립심을 길러 주고자 하였으며(박은정, 1996). 반대로 자녀의 성별이 여아인 경우, 의존성을 길러주는 양육 태도(이현순, 1982; 박은정, 1996)를 보였다. 또한 딸의 양육에서 아버지가 더 엄격한(이현순, 1982)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희진(1995)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어머니들의 신념 비교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순종과 독립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별과 출생 순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즉, 남아의 어머니는 아동의 양육에서 자유로운 생각, 감정 표현과 독립심을, 여아의 어머니는 순종을 더 강조하였고, 장남의 어머니는 자유로운 생각, 감정 표현과 독립심을 강조하지만 장자(장남이나 장녀)가 아닌 자녀의 어머니는 순종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주지에 따라 양육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부모는 거부, 통제에 경향이 높은 것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원영, 1983; 윤세용, 1987; 이영순, 1988; 김인순, 1991; 상형자, 1992). 이러한 사실은 임희수, 박성연(1994)의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오기선의 ‘아버지와 자녀관계 진단 검사’를 이용한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아동의 독립성을 격려하고 아동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살펴볼 때 거주지가 도시인 경우보다 농, 어촌인 경우가 더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세용, 1987; 상형자, 1992).

2) 효에 대한 인식

효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는 아동 뿐 아니라 중,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용된 연구 도구나 대상이 다양해서 한마디로 명확히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효의 개

49) Schaefer의 MBRI에서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란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자녀에 대한 이와 같은 통제는 체벌과 같이 신체적인 것에서부터 애정의 보류, 용동감액, 과보호, 자녀에 대한 소유욕 등 사회 심리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접촉을 함으로써, 자녀의 의존성을 조장하게 되고 과보호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념, 이유, 효의 실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효에 관한 인식은 대체로 바르다는 연구 결과(정옥분, 1997)와 효의 가치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조복희·이진숙, 1998)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 역시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전용오, 1991). 구체적으로 효의 의미에 대해서도 국민학교 학생은 “건전하고 착하게 생활하는 것”(강점중, 1994), 국민학교생과 대학생은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강점중, 1994; 최정혜, 1997), 대학생이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 것(최정혜, 1997) 등으로 인식하였으며 성인들도 효의 의미로 감사, 수신, 안락, 공경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정옥분, 1997).

두 번째,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가, 그리고 존경하므로(전용오, 1991), 무조건 혹은 낳아주셨으므로, 사랑의 의미(이미용, 1998) 등으로 인식하였고 이와 함께 성인들이나 초등학생 모두 보은, 도리(최정혜, 1997; 이미용, 1998)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년층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보은(성규탁, 1995)으로 인식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셋째, 효의 실천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한 순종, 공경, 그리고 봉양에 관한 인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중학생의 경우,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박정수, 1983),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요구가 부당할 경우, 순종하지 않는다(이병국, 1997)고 하여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무조건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하지 않음은 연장자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무조건 복종을 당연시하기보다는 성인의 권위에 따르는 책임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김혜숙(1993)

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 역시,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는 것(전용오, 1991)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성인들은 효의 실천에 있어서 감사, 안락, 수신, 입신 등을 강조하였으며 아동에 대한 효 교육에서 입신과 수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옥분, 1997).

다음으로 효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에게 공경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으며(강점중, 1997) 때때로 경어를 사용하며(이미용, 1998), 가끔 공경어를 사용하는 경우나 가끔 예삿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강점중, 1997)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부모님이 부르실 때에도 언제나 달려가는 경우는 반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점중, 1997). 반면 외출시 부모에게 인사를 하기(강점중, 1997; 전용오, 1991)나, 부모님께 물건을 드릴 때도 두 손으로 드려야 되는 예절에 대해서도 인식이 높은 것(이미용, 1998)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효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구체적인 행동규범은 과거와 같이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조선 시대와 현대 부모-자녀관계의 비교

조선 시대와 현대 사회 부모-자녀관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대와 조선시대의 부모의 양육 태도의 특성은 같았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지니게 되는 기본적인 양육 태도는 과거나 현재나 모두 애정과 엄격한 가르침(통제)을 의미하는 자애(慈愛)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현대와 조선 시대의 양육 방식은 모두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달라졌다. 아동의 연령이 어릴 때에는 좀더 많은 자유, 자율성을 제공한 반면, 아동의 연령이 성장하면 엄격하게 가르치는(통제하는) 특징이 조선시대와 현대 사

회에서 모두 같았다. 또한 아동이 남아인 경우, 부모는 자율성, 독립성을 강조한 반면, 여아에게는 의존성을 강조하는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남아의 경우 한 가정의 중심 인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독립심-을, 반면 여아는 주변적 인물의 덕목-순종 혹은 의존성-을 길러주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 교육에서 추구하는 바가 같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현대 사회의 양육 태도는 부모의 교육정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거주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의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의 사회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율성, 독립심을 조장한 반면, 덜 통제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거주지별로는 도시의 거주자가 농, 어촌 거주자보다 자율성, 독립심을 조장하고, 덜 통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의 교육 정도,

사회적 수준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양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서구화된 양육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모에 대한 효(孝)에 관한 인식이 과거와 같았으나 그 실천은 달랐다. 즉,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이유로 보은, 인간의 도리, 사랑 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의 의미로 보은, 공경, 안락, 수신의 의미로 보았다. 다만 순종, 봉양, 공경 등의 구체적인 효의 실천 방법은 과거와 달랐다. 특히 순종에 있어서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장자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무조건 복종을 당연시하지 않고 성인의 권위에 따르는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구체적 예절에서는 과거의 예절이 엄격히 실천되지는 않고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시대에는 아동은 물론이고 그 부모도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 받지 못하였으며 아동은 당시의 수직적, 종속적인 신분제에 기초하여 성인, 혹은 부모보다 낮은 존재로 인식되었다. 당시의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엄격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자애(慈愛)와 자녀의 부모에 대한 공경, 봉양, 복종을 의미하는 효(孝)의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모-자녀 관계 중에서 자녀의 효도를 부모의 자애보다 더욱 강조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양육 방식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3세, 10세가 되었을 때 각각 변화하였다. 즉, 아동의 나이 3세까지 부

모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보호와 자유를 제공하지만 10세 이후에는 성인같이 행동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엄격한 양육 방식을 보였다. 또한 양육의 주 책임자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의 나이 10세를 기준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애정-통제형이었으며, 아동에 대한 양육 태도는 아동의 연령, 성별에 따라 달라졌다. 즉,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율성을 강조한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자녀의 성별이 아들에 경우에는 좀더 자율적이고 독립성을 조장하는 양육 태도를 보인 반면, 딸에 대해서는 의존성을 조장하는 양육 태도를 보였다.

또한 부모에 대한 효의 개념이나 그 실천 이

유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다름이 없었다. 다만 순종, 공경, 봉양 등의 실천에 있어서는 과거와 달랐다. 즉, 부모에 대한 무조건 순종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였으며, 부모에 대한 경어의 사용 등과 같은 예절 역시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았다.

셋째, 조선 시대에 강조하는 이상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와 현대 사회의 부모의 양육 태도는 동일하였다. 다만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인 효에 있어서 인식은 같았으나 그 실천에서는 많은 부분 달라졌다.

현대 사회나 조선 사회에서 모두 아동의 양육 태도는 애정과 엄격한 가르침을 중시하는 것으로 동일하였다. 이러한 양육 태도는 아동의 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율적인 태도를,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제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 동일하였다. 또한 아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길러주는 양육 태도를 보인 반면 딸에게는 의존성을 강조하는 양육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동일하였다.

효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유

사하였으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즉, 보은의 개념에서 효를 보는 개념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에 대한 무조건 존경의 의미는 많이 소멸하였다. 또한 효의 실천 역시 과거와 같이 강조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서구의 부모-자녀관계나 양육에 관한 이론들이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부모-자녀관계의 실천에서는 부분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이들이 우리 나라의 부모-자녀관계의 근본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원영(1997)이 애정-통제형이라고 하는 현대 사회의 부모 양육태도의 특징이 전통 사회의 한-정이라고 하는 구조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서구의 아동 양육 이론이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한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김지신(1996)의 연구에서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부모일수록 애정-권위적 통제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부모-자녀관계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한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참고문헌

- 강점중(1997). 국민학교학생들의 효윤리관에 관한 조사비교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영미(1995).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심(1990). 가족형태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윤숙(1989).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인순(199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치원에서의 유아의 적응과의 관계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숙(198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과의 관계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신(1995).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남(1987). 외동이와 두자녀이상 어머니의 양육

-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경(1998). 일제하 “어린이기”의 형성과 가족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숙(1993).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한국가족의 신념과 심리적 적용. 청소년상담연구, 1(1), 113-127.
- 김희진(1995).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어머니들의 신념 비교 연구. 유아교육연구, 15(2), 5-22.
- 동아출판사(1962). 국민생활백과. 서울:동아출판사.
- 동지사(1962). 새로운 육아백과. 서울:동지사.
- 박세무(1982). 동몽선습. 이기석(역해). 서울:홍신문화사.
- 박은정(1996).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어머니의 양육태도 현황: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수(1983). 중학생의 생활 의식구조 조사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혜리(1997).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상형자(1992).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규탁(1995).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들간의 차이. 한국노인학, 15(1), 1-14.
- 소혜왕후 한씨(1986). 내훈. 김종권(역주). 서울:명문당.
- 여원사(1967). 새로운 육아백과. 서울:여원사.
- 웅상(1987). 여사서. 김종권(역해). 서울:명문당.
- 우인철(1996).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병덕(1993). 동학·천도교. 서울:교문사.
-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 윤세용(1987). 환경적 요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계학, 유혜령, 손지수, 이홍우(1993). 한국인의 전통가정 교육사상.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계학(1995).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의 현대적 조명-효부 엄부자모를 중심으로-. 세계화를 위한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 모색. 1995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44.
- 이미용(1998). 초등학교 경노효친교육의 내면화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병국(1997). 효친의식 향상을 위한 지도방안.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영순(1988).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원영(1997). 한국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토의. 한국과 미국의 부모양육방법 비교. 삼성생명 주최 심포지움 토론원고.
- 이이(1986). 격몽요결. 김성원(역해). 서울:명문당.
- 임희수, 박성연(1995).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15(2), 153-168.
- 저자미상(1982). 예기. 권오돈(역해). 서울:홍신문화사.
- 전용오(1991). 아동의 충·효·신 의식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 최영희(1997). 전통 ‘효’의 개념에서 본 부모역할 인식과 자녀양육행동. 아동학회지, 18(1), 81-107.
- 조복희, 이진숙(1998). 한국 부모-자녀 관계 관련 속담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인식도. 아동학회지, 19(1), 5-26.
- 조혜선(1999). 아버지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숙도 및 사회문제 해결전략.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칠성(1996). 실학파의 실학사상-학파의 사상을 찾

아서2. 서울:예문서원.

주희(1994). 소학. 박병대(역해). 서울:일신서적.

최정혜(1997). 대학생의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5(6), 55-68.

표옥자(1996).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허은주(1987). 부모의 성 및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관 과 양육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황선명(199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 사고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B. Spock(1969). 스포크 박사의 육아전서. 김효규(역). 서울:정음사.

H. G. Ginott(1972). 부모와 자녀. 김순희(역). 서울:한명문화사.